

문화연대 주요활동가 멤버쉽 트레이닝 보고

참석자 : 도정일(공동대표), 김정현(집행위원장), 임명구(감사), 김준목(감사), 강내희(정책기획위), 정기용(공간환경위), 임옥상(문화행동기획센터), 강찬석, 김기중(문화유산위원회), 심광현, 여국현(문화개혁감시센터), 지금중(지역소위), 김재윤(도서관출판위), 고길섭(편집위), 박찬국(미술소위), 정희섭, 이명혜(사무처)

*150여명에게 참가 권유문을 보내고 90여분께 전화를 드렸으나 막상 참가자 숫자는 20여명에 못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주 활기차고 성과있는 논의를 했으며 공식논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밤새도록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1. 먼저 각 활동기구별로 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강을 요약하면,

1) 정책기획위원회--①강내희 위원장 이하 6명, 정기회의 월2회

②11월10일 토론회 <새천년 기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③상근활동가(간사)가 없어서 지속적이고 성과가 축적되는 활동에 어려움이 많음.

④사업방향 ; 문화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 정립/자료수집, 연구조사/문화정책 비판 및 대안마련/문화개혁 의제화(정기 문화포럼)/문화연대 정책과 사업 기획 조정/문화연대 명의의 대외입장표명(성명)

⑤우선 사업계획--문화연대에 필요한 기본 문헌 마련('강령'/문화적 권리 진작 위한 기본 문건, 정책 제안서), 문화개혁 현안 소책자 제작, 월례 정기 포럼(2000년 1월부터 시행).

2) 문화개혁감시센터--①김채현, 심광현 공동소장 이하 4명. 여국현 간사

②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의정감시(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0년 예산감시(국회 예결산위) 활동.

하노버 엑스포, 한일슈퍼 엑스포에 대한 문제제기 (자료집 발간 작업중)

*관련문제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2000년 문화예산 심의에 일정하게 문화연대의 의견이 반영된 점, 언론에 활동이 반영된 등의 성과를 보임, 특히 여국현 간사의 헌신적 활동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③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하는 문제, '전망'을 걸 수 있는 활동가를 확보해야 한다.

④사업방향--의정감시/예산감시/행정감시

⑤우선사업 계획--예산감시를 위한 실무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워크샵 (1월중)

시민단체 공동의 예산감시 네트워크 사업 참여

문화악법 조사연구, 목록작성 작업

지역축제 분석

3) 도서관출판위원회--①김혜경 위원장 이하 10명의 실무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에 들어감. 분야별 전문소위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준비 중

②정부의 관련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대안 마련/국민독서운동 점검/출판도서관 관련 Q&A 작성.

③기존의 여러 출판단체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용 선생이 일산에 건설 중인 출판단지에서 들어설 아세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대해 건축인들과 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함. 예: <한국 출판계에 맞는 건축을 위한 워크샵> 나아가 출판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프로그램 기획 같은 것을 용역받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옴(심광현)

4) 문화유산위원회--①그동안 강찬석 (임시)위원장 혼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으며 간사도 구하고 내부 활동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임.

- ②경복궁 건청궁지역 개방에 대한 질의 활동을 벌였고, 병산서원 문제에 대처하는 단체들의 연대모임을 꾸림.
- ③문화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답사, 학술세미나 등 일반시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실시하기로 함.
- ④내년 중점 사업으로 프랑스에 가있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절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청주시, 유네스코)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소극적(사실상 부정적) 입장에 대해 대처하는 활동을 제안함--이에 대해 문화유산위 단위가 아닌 문화연대 전체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강찬석이 마련한 기획안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꾸리기로 함.

5)문화행동기획센터--①센터에 결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원들과 일차 모임을 시도했으나 참석자가 없어 무산됨, 무리하게 모임을 시도하기보다는 '회원을 찾아가서' 의견을 나누기로 함.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

②사업방향--조직화 이전에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임옥상 소장이 하고 있는 '갯벌 살리기', '대인지뢰 대처'등의 프로그램을 문화연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문화행동기획센터가 일종의 '문화프로그램 뱅크'가 된다면 지역의 많은 문화 공간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종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지금중)

③Earth-Day 2000, ASEM의 NGO 대회 등에 문화프로그램으로 능동적인 결합을 할 필요가 있다.

6)공간환경위--*공간환경의 관점에서 한국건축(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기용 선생이 자세한 강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의식개혁/제도개혁/공간개편/공간생산 감시/일상 문제 등등에 걸쳐 문화연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등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강의였음. 그 중에서 사업으로 제안된 것을 정리하면,

- ①공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교육단체들과의 연대사업
- ②나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건축계의 법, 관행, 기구등에 대한 개혁작업 필요.
- ③국토개발이용계획에 대한 감시활동이 필요.
- ④좋은 건축/주거 모델 선정, 홍보/나쁜 건축 선정, 철거 운동 전개 필요
- ⑤서울의 도시공간 중 마지막 '빈 곳'인 미8군지역, 미대사관, 대사관원 숙소, DMZ 지역에 대한 워크샵을 할 계획.

*사업과 담당자(기구), 그리고 시간을 고려한 사업계획표(매트릭스)를 짜고 이를 수정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나 철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7) 편집위--그 동안 두 번에 걸쳐 창간준비호를 낸 '신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홈페이지등 사이버 활동에도 노력해야 한다.
- 회원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월간이 되므로 신문이 아니라 잡지가 되는 셈, 원래 월2회격주로 발행하겠다는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그 동안도 편집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됐고 새편집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면 정식 창간호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대중지적 성격을 갖겠다고 하지만 '대중지'를 낸 능력이 안된다.
- 신문 제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제안되었으나 기존의 <문화연대>라는 제호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잘 가동되지 않는 편집위를 전면 개편하고 활동할 수 있는 편집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한꺼번에 구성하기는 힘들므로 형편에 닿는 대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 신문(앞으로는 월간지?) 외에 내부소식지, E-mail, Fax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주 소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서둘러 적극 활용하자.

8)지역소위 ; ①지역주민이 문화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직화방안이 필요하다(지급중)

②지역조직 문제는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은 당분간은 '중앙집중적' 회원 방식을 취하면서 이후 자율성을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서 관계 맺는 지역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좋겠다.

2. 두 번째로 정희섭 사무처장이 문화연대의 현황보고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건별로 논의된 내용을 열거합니다.

1)집행위원회 소집 -- 창립총회에서 다음 총회는 2001년에 소집하기로 했으므로 그 때까지는 집행위원회가 총회를 대리하게 됩니다. 1999년 활동을 보고하고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주요안건으로 다룰 집행위원회를 2000년 1월 29일(토)에 개최하기로 함.

2)회원 확대운동 전개 -- 시민단체는 시민회원 확대 자체가 하나의 일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목표 숫자를 가지고 시민회원을 확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겠다, 특히 겨울 방학 기간 활용해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주요활동가들로 하여금 회원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한다. 문예아카데미와 같은 대중 상대의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들을 거쳐간 사람들을 1차 타겟으로 잡자.

문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가입할 것이다.

3)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회원의 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시민운동의 알파와 오메가. 단체가 회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여 회원들이 소속감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연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편지, 팩스, E-mail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에게 자주 소식을 전해야 한다. 열심히 회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자. (공연티켓, 책자, 할인혜택 등등). 회원들에게 문화에 참여하는 기회와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회원의 날 행사). 문화연대의 주요활동가들은 모두 전문가로서 시민에 대한 접촉면이 별로 없다. 대시민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경험있는 단체들로부터 대시민활동/회원관리에 관한 원칙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워크샵을 마련하자.

4)재정문제에 대한 대책--

①재정현황 : 11월30일 현재 회비 납부율은 33.4%로서 납부액은 1,828만원. 그러므로 내년 9월까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회비수입액은 납부율을 100%로 잡아도 4400만원 정도이며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은 3800만원 정도. 실제 회비 납부율을 70%로 잡더라도 월 가용예산은 280만원 정도가 됨.

②애초에 5000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창립기금 및 후원금 모금액이 1400여만원 정도에 그침. 모금에 노력하고 특히 후원의 밤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한다.

③현재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작가가 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판매에 나섰다.

④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회비 수입을 늘리는 것.

⑤일종의 비상조치로서 한시적으로 일부 핵심활동가들이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비를 더 낼 것을 권유하자.

5)활동력을 높이는 방안 : 상집위원들에게 무조건 활동력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의식을 가진 자신과 관련된 일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활동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문화연대의 논의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방식을 만들자. 평소에 공동대표들과 지도위원/집행위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위원/지도위원들의 전문성을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자. 전업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없으므로 주요활동가들의 연간스케줄을 받아서 연간 사업에 맞게 이들을 배치하자.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자발성있는 주요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젝트와 매트릭스를 짜야 한다.

6)조직과 체계의 개편 방향 : 일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명망정보다는 활동력을 중심으로 활동기구

의 담당자를 선임하자. 특히 상임집행위원회에 활동력 있는 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활동기구 대표 개념에서 주요활동가 개념으로 상집위원을 확대하자. 활동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활동가(initiating activist)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할 만한 일들을 설정하여 프로젝트별 테스크 포스 개념을 도입하자.

7)시민자치문화센터의 사단법인 추진 문제 : 시민자치문화센터를 대중조직 개념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틀의 개념으로 보고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도구적인 의미'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자. 그를 위해서는 임원선임이나 회원확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하의 사무처장 개인이 정리한 것임

3. 정리--2000년도 활동방향

- 1)시민회원의 확대와 재정 확충
- 2)대회원 사업 강화
- 3)구체적 사업에 맞는 논의와 조직체계 마련
- 4)사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매트릭스 구축
- 5)예산에 맞는 지출을 통한 적자재정 회피
- 6)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사이버 활동 강화

4. 사업 계획 (사무처장이 재정리한 것임)

- 1)문화감리 사업(연중)--현재 모기관과 논의 중--태스크 포스
- 2)시민자치문화센터의 사단법인화 (1월중)--사무처
- 3)예산감시/행정에 대한 워크샵 --1월13일 예정--문화개혁감시센터
- 4)연중 예산 감시 활동 사업 참여 -- 문화개혁감시센터
- 5)문화연대 월례 포럼 --1월부터--정책기획위원회
- 6)'직지'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운동 추진--문화유산위, 태스크 포스
- 7)DMZ, 용산 미8군지역과 공간문제에 관한 워크샵--공간환경위
- 8)양평 시민공원 환경조형물 사업 --미술소위
- 9)도서관출판위 사업
- 10)문화개혁감시센터 연례사업
- 11)월간 <문화연대> 발행 --편집위원회
- 12)격주간 <문화연대 소식> 발행--사무처
- 13)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활동--사무처
- 14)대시민(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사무처, 문화유산위.
- 15)후원의 밤/회원의 날 행사 마련
- 16)집행위원회 소집--1월, 10월
- 17)예술교육 문제에 관한 토론회--1월 중--태스크 포스